



# 불안의 시대 ... 용기와 성찰이 필요해

## 2015년 어떤 책 읽었나

올해 출판계는 아틀리 심리학 열풍을 일으킨 일본 작가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 책으로 꼽혔다.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 서점 예스24와 교보문고가 집계한 판매 동향에서 나타났다. '미움받을 용기' 인기에 힘입어 심리학 관련 도서 출간이 잇따랐다. 장기 불황 속 '나'의 안팎을 단련하고 성장하는 인문, 자기계발 도서가 인기를 끌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순수 문학 장르인 소설이나 시 관련 책들의 판매는 저조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과 인문, 자기계발서 선호 탓에 정통 문학에 대한 수요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베스트셀러 도서는 '아틀리 심리학' 열풍을 일으킨 '미움받을 용기'가 차지했다. 예스 24에서는 통산 40주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39주 1위를 기록한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넘어섰다. 교보문고에서는 '미움받을 용기' 열풍에 힘입어 아틀리 심리학을 읽는 밤' 등 총 14종이나 발견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문학 육성 움직임이

**'미움 받을 용기' 열풍**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아날로그 취미 '컬러링북'  
인문학 실용서도 상위권  
국내 소설·시 고전  
상위 20권에도 진입 못해

가시화되면서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쉽고 재미있게 교양 지식을 풀어낸 이 책 시리즈는 오랜 기간 상위권에 자리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아날로그 취미 열풍을 일으킨 컬러링북의 인기도 높았다. 조해너 베스트의 '비밀의 정원'은 안타-스트레스 컬러링북으로 유명세를 탔다. 경기불황과 치열한 경쟁에 지친 독자들이 심리적 위안을 찾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계발서 인기도 만만치 않았다. 최고의 대학이 정춘에게 들려주는 성공 습관을 집약한 '하버드 새벽 4시 반'과 책 한권이 통째로 '복사'되는 기적의 공부법을 소개한 '7번 읽기 공부법'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 '혼자 있는 시간의

## 교보문고

- 1위 미움받을 용기
- 2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 3위 비밀의 정원
- 4위 나미야 집화점의 기적
- 5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 현실너머편
- 6위 하버드 새벽 4시 반
- 7위 오베라는 남자
- 8위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 9위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메뉴 52
- 10위 해커스 토익 보카

함'도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국방' 유행과 함께 백종원의 인기로 힘입어 요리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가 주목 받으며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해외문학에서는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집화점의 기적'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스웨덴의 한 노인이 살아온 인생을 코믹하게 그린 요나스 요나손의 장편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과 가칠한 이웃 남자 오베의 삶을 형상화한 프레드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도 순위

## 예스24

- 1위 미움받을 용기
- 2위 비밀의 정원
- 3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 4위 오베라는 남자
- 5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 현실너머편
- 6위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메뉴 52
- 7위 혼자 있는 시간의 힘
- 8위 나미야 집화점의 기적
- 9위 하버드 새벽 4시 반
- 10위 7번 읽기 공부법

권에 올랐다.

올해 국내 소설과 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만큼 뚜렷하게 사랑을 받은 작품이 없었다. 전반적인 자기계발서와 수험서, 인문학 도서의 인기로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0위권에 드는 국내 소설과 시는 없었다. 장기 불황 속에서 소설과 시를 읽는 독자층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유시민의 '글쓰기특강'과 신영복의 '담론'이 인문 분야 20권 안에 들어 국내 작가들의 체면치레를 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Yummy Yummy 맛있는 콘서트'



한소리회, 12일 광주아트홀 클래식·가요 등 어우러진 공연

여성 성악가들의 모임인 한소리회 음악회는 유쾌하고 즐겁다. 정통 클래식 음악 뿐 아니라 팝송, 가요 등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레퍼토리와 더불어 미안 노래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소리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아트홀에서 제35회 정기공연 'Yummy Yummy 맛있는 콘서트'(사진)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주호, 김원기 편곡)', 명성황후 OST로 유명한 '나 가거든', 뮤지컬 캐츠의 'Memory', 크리스마스 캐롤 'O

holy night' 등이다. 더불어 합창 메들리 7곡(백만송이 장미, 당신은 모르실거야, 널 사랑하겠어, 새들처럼, 붉은노을, Sorry sorry, 별빛 달빛), 트로트메들리 4곡(남행열차, 서울대 전대구부산, 자옥아, 짝짜리) 등 흥을 돋구는 곡들과 맛있는 콘서트라는 컨셉에 맞게 김밥, 중화반점, 카레 등 제미안 노래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총감독 박미애(광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를 필두로 소프라노 이나연, 장희정, 윤희정, 임영란, 장은영씨, 알토의 박정희, 박정연, 조현서씨, 피아노 반주는 장희경씨가 맡는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062-227-74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별송이 송·송·송'

대인예술아시아장 '별장' 12일 한 해 마무리 행사

12월 대인예술아시아장 '별장'이 11~12월 '별송이 송(Song),송(Snow),송(Adieu)'을 주제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별장프로젝트 사업팀은 주제에 맞춰 테마거리로 김도연 목수가 만든 '시슴', '눈송이' 등의 나무작품을 설치한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테마를 담아낸 다양한 아트상품들도 선보인다.

거리 공연은 풍물팀 '깡배기'의 시장 속 길놀이로 시작해 다양하게 진행된다. 합창그룹 '크림피아', '빅스타플랜'의 합창음악과 디제잉 공연, 포크

밴드 '별이삼우물정'가로등뮤직' '달빛동맹'의 공연이 펼쳐진다.

12월 세시봉(歲時·Bon) 전시는 '송년'을 주제로 창작스튜디오 다다(대인수산시장 주차타워 5층)에서 열린다. 작가 20명이 참여해 11~30일까지 개최된다.

한평갤러리에서는 19일까지 6인의 작가(경강인, 류금삼, 양세미, 고유정, 김해리, 김생훈)와 6인의 큐레이터(서인숙, 김소현, 김기희, 조하은, 한선미, 최영서)가 참여한 '여섯개의 시선'전이 열린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내일 목요일국악한마당 '지음지기'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오는 10일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제476회 목요일국악한마당 행사를 연다. 젊은 국악인 김소연씨와 신혜인씨의 듀오 음악회다.

'지음지기(知音知己·소리를 듣고 나를 인정해 주는 친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두 사람은 가야금과 판소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

을 들려준다. 연주 곡목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우리에게 친숙한 '도라지'를 주선율로 한 25년 가야금 곡 '황금산의 백도라지', 판소리 김세종제 '출항가' 중 '이별가'와 강산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랑은 만고불변의 진리 ... 박경화 소설집 '존재들' 펴내

13세 무렵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쓴 '안네의 일기'를 읽은 후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던 소녀가 세 권의 소설집을 펴낸 작가가 되었다. 주인공은 지난 2000년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이후 '태양 감은 여자' 등을 펴낸 박경화 작가. 박 작가가 이번엔 펴낸 소설집 '존재들'(문학들)

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사랑을 다룬다. 작품집에 실린 7편의 단편들은 사랑에 빠진 이가 특정한 상황에 매몰되었을 때 겪게 되는 병리적 현상을 탐색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타인에게 예측되는 사랑을 하며, 그로 인해 주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표제작 '존재들'은 "자유와 고통이 뒤섞인, 설

명할 수 없는 복합체"로 인간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한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기에 비논리적인 수밖에 없고, 부조리한 사랑으로 상처받더라도 이를 극복하겠다는 주인공의 의지는 '인간적' 그 자체다. 한편 박 작가는 2012년 퍼포먼스 아트 아카데미 수료 이후 '나의 맨발my bare-foot'과 '어항fish bowl'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